

사진가자의 단상

“경제 한파 물러가라” ‘태권 소녀’ 거침없이 하이킥



하나 둘, 하나 둘~ 29일 광주 북구 시립장애인 복지관에서 열린 2008 장애인 체육상 시상식에 도복을 곁게 차려입은 꼬마 태권 전사가 나타났다. 이날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온 태극무 공연단의 일원입니다.

오늘의 유머

▲불가능한 꿈

한 방중에 여자가 겁에 질린 채 남편을 깨우며 말했다. “여보 끔찍한 악몽을 꾸었어요.” “무슨 꿈인데 그래?” “내가 젊은 나이에 죽는 꿈이었어요.”

▲아내의 복수

한 여자가 백화점에서 물건값을 계산하기 위해 핸드백을 뒤지는 데 TV 리모컨이 눈에 띄었다. 그것을 본 점원이 여자에게 물었다. “외출 하실 때 리모컨을 항상 가지고 다니시나요?”

▲내가 누구게?

시험기간이 되면서 대학 도서관이 만원을 이루었다. 어떤 여학생이 도서관에 들어와 조심스레 줄을 옮기며 공부하고 있는 한 남자의 뒤에 섰다. 여학생은 두 손으로 남자의 눈을 가린 뒤 물었다.

그려자 여자가 손을 풀면서 말했다. “이 자리 주신.”

▲남자에게 중요한 것

- 1. 집안 살림을 잘하고 나만 바라보는 현모양처의 여자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. 2. 물질적으로 풍족해 늘 비싼 선물을 사주는 여자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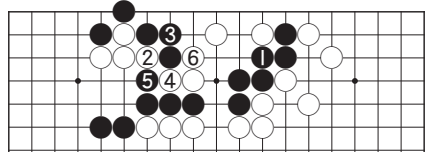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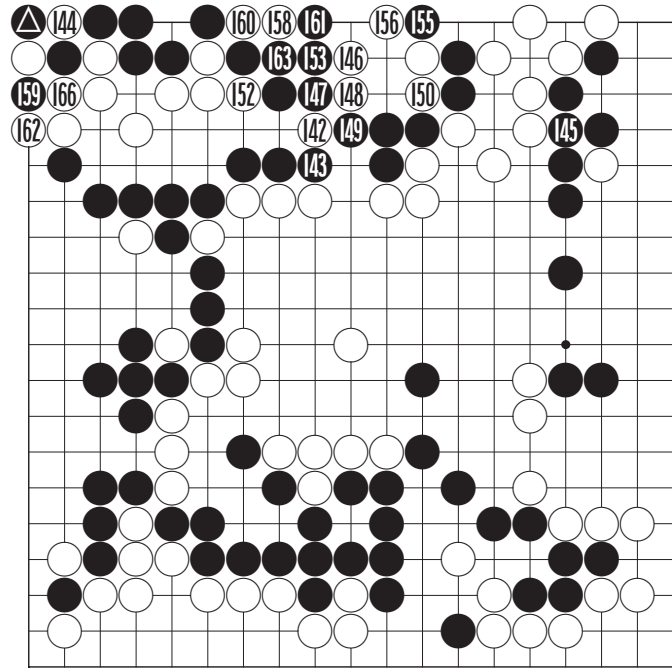
▲인생의 재미

소개팅 자리에 나간 남자가 여자에게 물었다. “혹시 담배 피우시나요?” 여자가 황당하다는 듯 대답했다. “어머! 저 그런 것 못 피워요.”

▲파리 한 쌍

파리채를 들고 있는 남편을 보고 아내가 물었다. “파리 좀 잡았어요?” “응. 암놈 한 마리하고 수놈 한 마리를 잡았어.”

제89회 전국체전바둑대회



좌상귀에서 백 대마의 목숨이 걸린 패싸움이 벌어지고 있다. 이 패는 흑로서는 부담이 없는 그야말로 꽃놀이 패이나 백은 지면 끝장이다.

날카로운 승부수

일반부 결승 8보 (142~166) / 백 송홍석 7단 / 흑 이상현 6단 (경기) (서울)

이 자람이다. 송홍석도 불리함을 의식하고 패를 버려둔 채 다시 백 146으로 적진 깊숙히 쳐들어가 연속해서 날카로운 승부수를 날리고 있다.

Logos and names of the organizing bodies: 대한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and EL DORADO 엘도라도리조트

리빙 스텝 / 마스크라 테크닉

- 1. 한 손으로 눈두덩을 집어올리고, 뷰어로 속눈썹 뿌리부터 집는다. 힘을 빼면서 속눈썹을 위로 올려준다. 이 과정을 3~4회 반복한다.

知天命이 되는 오늘의 운세 (12월 30일)运势 table with zodiac signs and their corresponding fortunes.

Advertisement for Dermaplast skin care products, featuring an image of a woman's face and the text '운수는 나빠도 상처는 흉터없이!!'

굿모닝 잉글리쉬 <1221> | 오하오우 니혼고 <1221> | 니하오 쯙구워 <298> | 한자 이야기 <938>

Where is your brother moving? / 너의 형, 어디로 옮겨가니? / A: Where is your brother moving? B: Gwangju. A: That's pretty far away...

傳言(でんごん)ですよ. / 전언이 있어요. / A: たたいま、戻(も)りました. B: はい、お疲(つか)れさまです. 高橋(たかはし)さんに傳言(でんごん)ですよ.

你要喝什么? / 뭐 마실래요? / A: 你要喝什么? Ni yào hē shénme? B: 我要喝咖啡。Wǒ yào hē kāfēi.

邯鄲之夢 (한단지몽) / 땅이를 한, 땅이를 단, 어조사 지, 꿈 뎡 / 한단지몽(邯鄲之夢)은 전국시대 조(趙)나라 도읍이었던 한단(邯鄲)의 장터에서 산동(山東)지방 출신의 노생(盧生)이 꿈을 꾸고 인간의 영고성취(榮枯盛衰)가 한바탕 꿈과 같음을 깨달은 것을 비유하는 말이다.